

가장 인민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온 결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임군들은 숙고한 애국관과 혁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멀사복무해야 하며 스스로 부리를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을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총령 구역의 보건기관들의 면모를 볼 때 1년사이에 일신되고 치료에 방사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얼마전 총령 구역인민병원과

작은 것에 서

한데 전 구역당책임일군이 구역안의 보건기관들을 돌아보았을 때 실내는 시원치 못하였다. 일부 일원호실들과 병동들의 치료조건과 환경이 당시에 바라는 높이에 따라서 못하고 있었다. 그려하여 책임일군은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들, 구역의 보건기관 일군들과 함께 현장을 다시 돌아보니 험화의 힘을 열었다.

『누구든 자기 부모나 자식이 바로 일원호실에 누워있다고 한민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일군들이 일원실의 바깥벽면에 미세한 실금이 간것을 있을수 있는 작은 현상이 아니라 큰 문제로 보았다면, 일민에 대한 본부부관들은 생긴 커다란 과제로 생각하였다. 어떻게 이것을 보고 수수

송평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모두가 세로운 결실을 거두었다. 그때부터 구역 안의 보건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뒷바탕이 물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구역의 일군들은 자체로 만들어낼수 있는 기술자와 암풀다방행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어볼수 있는 기술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맨족을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인민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책임진 보건기관의 일군들도 자기 단위의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제3예방원 치료과 평원동에 세면장을 훌륭히 꾸민 데 이어 두동력보이리로 자체로 놓아 식사장과 일원행봉장을 낸 남방을 보장하게 한것도 바로 이 과정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자기마련 천상도 살데로 소홀히 할 문제에 대해 모든 이원 판점에 서면 인민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을 보건기관들의 면모를 일상화시키는 과정에 구역의 일군들은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이 고마운 사회주의보건체제의 덕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자면 보건기관들의 외부를 잘 꾸리는것과 함께 내부를 일신하는데 더 벼심을 들여야 했

만집을 지자

다. 그러나 구역의 일부 일군들은 외부의 면모가 반듯하게 일신되자 마치 일이 다 끝난처럼 여기는 편향도 없지 않았다. 사실 구역당위원회의 정분에

있제 벌레나갔다.

리온침, 김봉침, 김정봉 등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국가과학원 연구사들의 기립한 현제밀에 비라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기간에 약초수출능률을 끌어올리고, 평원에 찾아온 인민들이 기다란간의 자가 무증되어 복도에 서았을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즉시에 기다란간의 자를 10여개나 마련하여 병원에 보내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일군들의 충격은 깊다. 인민에 대한 부모관성이 바로서지 못한 자신들을 실각히 반성하고

장에 서

있제 벌레나갔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료일군들이 해밀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엄마친 김일성종합대학 정양의학대학원을 찾았던 우리는 러시아로 자동조종하고 생산자위를 파악화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량 및 전자판에 의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제와 생산자위제를 수립하고 지난 10여년간 애인경제제 회을 해마다 넘쳐 수령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난간 대회를 수상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시에 전기보전체계를 개조하였다. 처음 해보면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이렇게 결실한 지배인은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기 위한 전기보전체계를 수립하고 전기공급과 설비운영을 직무체계로 정한 환시킴으로써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내립을 있게 하였다. 올해에는 악상산에서 판전직고보이로 보이리를 새롭게 개조함으로써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훨씬 늘리었다. 이 날과 공장에서는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일고나갔다. 창조적자와 함께 내부를 일정을 함께하며 아끌라를 바른 보람이 있어 이들은 꿈풀네 약초수출증축실비를 개조하고 애초마다나 괴짜기술으로 세계가 되었는데 있다.)

『생산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습 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순천고려약공장은 멀로 알리지도 않은 자그마한 공장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자체의 힘으로 큐레이터에 의한 액상생제

대 미 추 종 의 종 착 점 은 천 길 낭 떠 러 지 이 다

말을 바라볼수록 깊숙하고 갑수록 혐신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있지 않는가의 심해야 한다.

지금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끊고 따라가듯 파멸을 향해 전쟁마차를 미친듯이 돌아가는 미국을 무장한 꽃아고있는 남조선

미 친 대 통령 트럼프 의 푸들

트럼프의 험한 일에서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폭풍전의 고요』 등의 잔혹파동방이 펼쳐져나온고 저들이 전자로 미쳐버렸다는것을 증명해보이며는 그들 미국이 핵폭격기전체와 핵항공포를 학살단을, 핵수습부대와 이지스함들을 조선반도의 하늘과 바다에 편지를 밀며 무모한 불광단지를 해고있다.

우리 혁명무역이 세상을 뛰어서라도 찾았으나마 빅뱅까지 우려고 있었던 표적들이 이 성별의 조본안에 제발로 기어들어 저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 하나 평거도 불벼락이 터지고 남조선이 온통 죽대밭이 될 편이다.

썩은 고기가 히에나를 끌어온다고 하였다.

천민에 눈이 막고 종미에 쓸개가 빠진 피뢰들이 제 집안을 온갖 재앙을 끌어들이는 『자식』으로 만들어놓았다.

온 세계가 미치광이연설로 규탄하고 있는 트럼프의 『완전파괴』방법에 대하여 『단호히 대체해주자 강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미전략사들을 조선반도에 보내달라고 구걸한듯한 핵폭격기전체를 남조선상공에 뿌리들이고는 암박이 효과가 있으며 미국은 미국과 공조할 때이라고 당장한 것도 남조선집권자이다.

유엔 『제재결의』의 완전한 리행으로 북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 『성전의 진료를 수성하도록 암박해야 한

당국은 잠시라도 멈춰서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배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때 남조선집권자가 필요하다는 미국에 대고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만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책심 축구를 놓고는 대통령을 『어린 아이』, 『멍청이』로 취급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를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피뢰들은 더욱 활짝 달리불어 미친 짓랄을 벌여서도 3차례에 걸쳐 풀려올수 있다. 그의 손에서 핵기방을 빼앗아야 한다.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명령에 나서려고 풀하도록 하는 천한 한계한법안을 만들려야 한다고 떠나고 있다.

창녀 취급 당하는 가련한 신세

기막힌 것은 상전에 그렇듯 아양을 떨며 구세주로 섭외고 있지만 꿀 주고 행맞는 창녀와 같은 위금을 받고 있는 피뢰들의 거친한 신세이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남조선을 치켜주기 때문에 피뢰들이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고 구구 환영해야 한다. 남조선이 방위비를 더 내고 『자유무역협정』문제에서 회생이 되는것은 용당하다고 호통치고 있다.

세계여론은 트럼프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수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을것』이라고 헤쳐 남조선을 전쟁포로에 끌어들이고는 피뢰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국산 침단무기와 미사일방위체계구매를 강요하는데 대해 『조선반도안보환경악화는 미 국립장에서 무기판매의 좋은 명분이다.』, 『트럼프가 조선반도의 긴장이

오는지는 않음것이다.

미국에 들어놓고 맹종하다가 치에진 것은 이 멍쳐나 절경으로 화끈 말이 유행이 번 열을 맑는 트럼프의 물통을 쳐주는 소방대원도 못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유통망까지 같은 피뢰들이 만지작거리는 미치광이의 억지에 풍구질을 해내고 있다.

트럼프의 책심 축구를 놓고는 대통령을 『어린 아이』, 『멍청이』로 취급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를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피뢰들은 더욱 활짝 달리불어 미친 짓랄을 벌여서도 3차례에 걸쳐 풀려올수 있다. 그의 손에서 핵기방을 빼앗아야 한다. 의회가 대통령의 핵공격명령에 나서려고 풀하도록 하는 천한 한계한법안을 만들려야 한다고 떠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듯이 아예 달라붙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존재를 나타낼수 있겠는가.

세나름의 정책도, 자기식의 주장도 없이 상전이 하는것이라면 전쟁핵통이든 제재압

후회는 때늦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정치적자주권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미국에 맡긴 자기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아무리 유엔부대에 흘러 『평화』를 서른번이상 헤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단연하고 『단호하게』 말해도 그

것이 푸하듯이 떠나고 있다. 『단호하게』 말해도 그

한단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곱씹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 아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나 하는 기로에서 자신의 안전과 책임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협약한 정세 속에서도 도태세부엇이 저울의 균형이이고 저울은 가장 바빠지 않는 것인가. 미사나는 등록을 적대시하고 대양건너 미국에 블어살겠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보나 죽은 적진에서 서 보나 파란 옮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역사에는 악작바른 탄산으로 『동태』과 『현합』에 잘못 끌어들었다고 끝말을 먼

최근 남조선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마른성당』과 『현대』의 간판을 내건 각 정당들의 정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명하는 차지시키면서 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보수의 제길권을 확보해온 것이다.

